

# 전자부품산업이 가야 할 방향 재 확인

— 산업동향 및 「'93 신개발 부품 및 국산화대상 품목 전시회」 결과 보고 —

## '93신개발부품및국산화대상품목 전시회



### 1. 산업동향

현재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안고 있는 명제는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독자적인 기술개발력 제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전자부품산업은 최근 들어 그 비중이 더해 가고 있다. 즉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재료비 다시 말해 부품과 소재가 6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에서도 지난 '92년의 전자부품은 104억 9,000만\$을 기록, 이는 전자산업 전체 수출 206억 8,300만\$의 절반이 넘는 실적이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총수출 766억 3,200만\$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것을 10년전인 '82년의 수출과 비교하면 국가 총수출은 218억 5,300만\$에서 3.5배, 전자 전체수출은 20억 6,900만\$에서 약 10배, 이에 비해 전자부품 수출은 9억 1,400만\$에서

11.5배로 각각 성장하여 전자부품산업의 신장은 가히 눈부시다 하겠다.

세계 전자부품산업에서의 위치 역시 더욱 확고해져 '82년의 세계에서 우리 전자부품 생산은 6.8%를 차지하였으나 10년후인 '92년에는 9.1%로 성장하여 생산액으로는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92년의 전자부품 수출을 보면 104억 9,000만\$ 중에 반도체가 65%, CPT가 8%, 자기테이프 8%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29%, 싱가포르 17%, 일본이 11%, 홍콩 10% 등으로 구성되어 부문으로는 반도체, 국가로는 미국이라는 수출의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수입에서는 76억 6,800만\$ 중에 반도체가 71%, CPT가 3%, 콘덴서 2% 등이며 국가별로는 일본이 40%, 미국이 26%, 싱가포르 13% 등으로 부문은 반도체, 국가는 일본이라는 수입의 구조적 특성을 볼 수 있다.

특히 '92년의 전자부품 수입액 76억 6,800만\$ 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30억 4,800만\$을 차지하여 바로 여기에서 우리 전자부품산업의 취약성을 엿볼 수 있다. 눈부신 성장 속에 산업역사가 짧

전자제품 제조원가 증 재료비(부품·소재) 비중

(단위: %)

제조원가	재료(부품·소재)비	인건비	제조경비
100	87.1	12.1	20.8

<자료: 한국은행 경영분석 '92>



전자부품산업의 국내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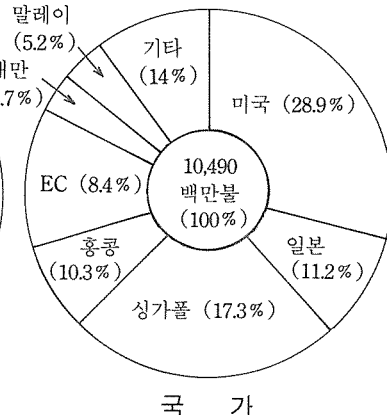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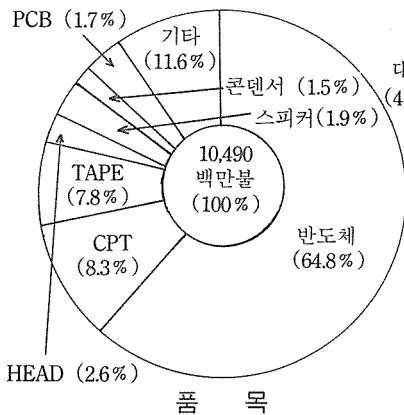
(단위 : 백만불)

구 분		1982년	1992년	
우리 총수출 에서의 비중	총 수 출 (A)	21,853	76,632	
	전 자 수 출 (B)	2,069	20,683	
	전 자 부 품 수 출 (C)	914	10,490	
	비중(%)	C / A	4.2	13.7
		C / B	44.2	50.7
세계 전자부품 산업의 위치	세계전자부품생산액(D)	26,807	172,582	
	우리전자부품생산액(E)	1,818	15,631	
	비 중 (%) E / D	6.8	9.1	

※ 세계 주요 전자부품 생산액(백만불) 순위

- (1) 일 본 : 59,785      (2) 미 국 : 44,090
- (3) 한 국 : 15,631    (4) 독 일 : 11,113
- (5) 싱가폴 : 5,508    (6) 영 국 : 4,670

주요 수출품목 및 국가('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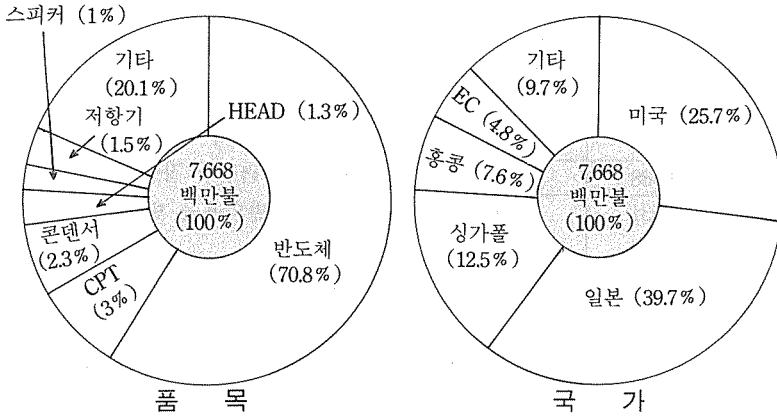
고 자립기반이 미약한 관계로 산업의 수입의존율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산업 자립기반의 척도가 되는 수입의존율을 보면 '82년의 전자산업은 29.6%에서 '92년에는 25.9%로 산업발전에 따라 수입의존율이 다소 낮아져 자립기반은 미미하나 개선된 반면 전자부품산업에서는 '82년의 32.5%에서 '92년에는 32.9%로 강보합세를 유지하여 결국 우리 전자부품 산업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외 의존도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내실있는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 2. 전시회 개요

본회에서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동안 본회의 11층 대회의실에서 「'93 신개발부품 및 국산 확대상품 전시회」를 전자신문사,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주요 수입품목 및 국가('92)



전자부품산업 수입추이

(단위 : 백만불)

구분	1982년	1992년	1993년 (1/4분기)	증감율(%)		
				'82/'92	'92/'93 (1/4분기)	
생산	1,818	15,631	4,185	24.0	8.2	
총수출	1,262	13,793	3,304	27.0	7.0	
	직접수출	914	10,490	2,559	27.6	5.9
	간접수출	348	3,303	745	25.2	11.5
내수(수입대체)	556	1,838	484	12.7	16.9	
수입	877	7,668	1,881	24.2	7.4	
수요	2,695	23,299	6,066	24.1	7.8	
수입의존율(%) (수입/수요)	32.5	32.9	31.9	-	-	

수출주요품목의 국산화율 추이

(단위 : %)

품명	'82	'88	'90	'92
C - T V	38	73	85	96
V C R	43	85	94	95
카스테레오	-	55	59	60
C D P	-	40	55	75
전자레인지	35	91	93	95
냉장고	80	91	96	99
세탁기	53	90	92	95
P C(386) (데스크탑)	-	-	60	88
칼라모니터	-	-	70	75
팩시밀리	15	64	70	75
위성방송수신기	22	38	45	50
교환기(TDX-1)	-	51	53	58

이번 전시회는 크게 세트업체로의 국산부품 채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부품업체의 신개발부품, 부품업체의 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세트업체의 수입부품,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자동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세트와 부품업체간의 표준화 부품 등으로 나누어 전시를 하였다.

전시회 첫날인 7월 1일의 개막식에는 본회의 구자학 회장, 상공자원부 박삼규 제2차관보, 엄길용 전자부품산업협회회장(오리온전기 사장), 김정덕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장, 김상영 전자신문사장, 황성박 대아리드선 사장, 한규완 본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테이프 커팅을 거행하며 전시회의 막이 올랐다.

### 3. 출품 동향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업체와 품목은 금성, 대우전자, 삼성전자, 한국전자, 현대전자산업 등 종합 5사 관련 부품수급협의회의 72개사, 금성사 등 세트업체 15개사, 삼성전기 등 전문 부품업체 19개사 등 모두 106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신개발 182점, 국산화 촉진대상 수입부품 197점, 표준화 부품 50점 등 총 429점이 출품되었다.

먼저 신개발 전자부품의 출품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106개사가 1,450여 2,400만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개발 완료한 182개 품목을 출품하였는데, 한국마벨의 카오디오 테크 메카니즘 등 1,019억원을 투입한 부품수급협의회의 72개사의 94개 품목과 삼성전기의 스피

출품업체 및 품목

구 분	업 체 수	개 발 비 (백만원)	개발품목수 (규격기준)
합 계	106	145,024	182
세 트 업 체	15	27,420	15
부 품 수 급 기 업 협 의 회	72	101,988	94
금 성 사	29	44,531	39
대 우 전 자	20	53,000	28
삼 성 전 자	12	2,812	13
현 대 전 자	6	1,192	5
한 국 전 자	5	453	9
전 문 부 품 업 체	19	15,616	73

출품현황

(단위 : 개)

구 분	합계	반도체류	전자관류	기구부품	수동부품	기능부품	소 재	기타부품
품목수	108	19	6	22	29	14	4	14
규격수	197	61	9	35	49	18	4	21

들 모터 등 156억원을 투입한 전문부품업체 19개사의 73개 품목과 금성사의 4" TFT LCD 모듈 등 274억원을 투입한 세트업체 15개사의 15개 품목이 참가한 업계 관계자의 눈길을 끌었다.

국산화 촉진 대상 수입부품의 출품현황은 모두 197개 품목으로 그중 반도체가 61개, 수동부품 49개, 기구부품 35개 품목 등으로 특히 골드 콘테서, LCD, 광 필터 등에는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생산자단체 표준화 품목 출품현황은 고전압 필름 콘테서 등 50

개 품목이 출품되었는데 이중 30개 품목은 '92년 완료된 것이고 20개 품목은 '93년 완료 품목들이다.

4. 기대효과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 세트업체의 개발 및 구매 관계자와 부품업체의 개발요원들을 중심으로 연구소, 대학, 정부 및 관련기관 등에서 1,000여명의 참가객이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성황을 이루었다. 당초 3일 일정의 계획에서 관련업체의 호응과 열면 성원으로 이틀을 연장, 7월 5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하여 연일 만원을 이루었다.

특히 캠코더, LDP, 핸드폰 등으로 성장유망품목이면서 관련부품의 국산화가 저조한 품목에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업계의 강한 개발의욕을 반증해 주기도 하였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수입부품의 국산화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신개발 부품이 세트제품으로의 채용이 촉진된다면 날로 심각해지는 대일역조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도 전자부품의 수입의존율이 33%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처럼 수입대체 부품 국산화가 활성화된다면 금년 말에는 30%까지 수입의존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표준화 부품의 확대에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특정업체만이 아닌 다수가 공유할 수 있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적정 생산단위 확보가 용이하고 자동화의 필수요건이 된다는 것 등이다.

이번 전시회로 우리 전자부품, 더 나아가 전자산업에 활력을 넣어준 것은 물론 앞으로의 좌표를 더욱 더 확실히 하는 전기가 되었다는 의미를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